

# 다음주부터 '주52시간 근로'... 광주·전남 조기정착 총력

### 광주 108·전남 93곳 우선 적용... 대기업 유연근로제 도입 유통업계 개·폐점 시간 변경... 건설·석유화학은 고민 여전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미덕처럼 여겼던 '과로 사회' 문화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전남 201곳, '삶의 틀' 바뀌는 근무시간 변화=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모두 201개소로, 광주지역은 광주시 등 60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기아차 광주공장·금호타이어·세방전지 등 108곳에서 우선 적용된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청, 도교육청 등 28개 공공기관과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공기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93개소가 해당된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 안

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시행 1개월 전부터 매뉴얼과 근태 관리시스템을 마련, 본격 가동 중이다.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의 초과 근무가 없도록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교육도 진행 중이다. 52시간을 넘을 우려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알림'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호고속은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초 부족한 버스기사 38명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다. 아울러 버스기사의 배차 제한 시간(주당 50시간)을 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했다. 사무직의 경우 오전 8시~9시30분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퇴근시간을 체크, 연장근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했다.

◇'아근본능' 문화도 바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광주신세계와 이마트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PC셋업·집중근무시간제·회의시간 제한 등도 운영중이고 개·폐점 시간도 조정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폐점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백화점도 PC온·오프제를 시행 중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분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퇴근시간을 체크, 연장근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했다.

◇'아근본능' 문화도 바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광주신세계와 이마트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PC셋업·집중근무시간제·회의시간 제한 등도 운영중이고 개·폐점 시간도 조정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폐점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백화점도 PC온·오프제를 시행 중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분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퇴근시간을 체크, 연장근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했다.

◇'아근본능' 문화도 바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광주신세계와 이마트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PC셋업·집중근무시간제·회의시간 제한 등도 운영중이고 개·폐점 시간도 조정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폐점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백화점도 PC온·오프제를 시행 중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분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퇴근시간을 체크, 연장근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했다.

◇'아근본능' 문화도 바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광주신세계와 이마트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PC셋업·집중근무시간제·회의시간 제한 등도 운영중이고 개·폐점 시간도 조정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폐점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백화점도 PC온·오프제를 시행 중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분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퇴근시간을 체크, 연장근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했다.

◇'아근본능' 문화도 바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영업시간 단축

## 국제광융합엑스포 3500만불 수출 계약

'2018 국제광융합엑스포'가 3500만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며 폐막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18 국제광융합엑스포' 기간 동안 국내외의 241개 업체와 기관이 550여개 부스를 마련하고 전시장을 찾은 1만 20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첨단 광융합 기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특히 엑스포 기간 동안 북남미, 유럽, 중동 등 22개국에서 온 175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광융합기술을 보유한 국내 광산업 기업체들과의 상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광산업 기업체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돕는데 공을 들였다.

전시회를 통해 유망성이 미안한 조명 프로젝트 기업과 미안한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LED 투광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16개사가 35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부대행사로 진행된 'OLED조명 기술 교류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OLED조명 R&D 공동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OLED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광융합엑스포가 세계 광산업 흐름을 확인하고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8일 목포 용당동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삼계탕 나눔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날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나눔 봉사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 일신방직 1공장 일부 가동 중지

전방·경방 이어 지역 방직업계 구조조정 가속

일신방직이 광주1공장 노후설비 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방직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신방직은 일부 저효율 노후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광주 1공장의 면사 및 혼방사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375억4300만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7.62% 규모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설비) 일부는 일신베트남으로 이전이며 금년중 가동예정"이라고 밝혀 해외로의 설비 이전을 재확인했다.

전방류이 지난해 10월 복구 임동 광주공

장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광주에 면사공장을 두고 있는 ㈜경방도 지난 5월 설비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지역 방직업체 설비 이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경방은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공장시설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오는 10월 광주공장의 면사 제조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국내 섬유산업의 이끈 1세대 기업인 경방이 지난 1987년 10월 광주 공장을 준공한 지 30년 만에 시설 일부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14.24 (-27.79)	↓ 금리(국고채 3년) 2.12 (-0.01)
↓ 코스닥 810.20 (-16.49)	↑ 환율(USD) 1124.20 (+6.60)

## 보해-YG 합작 탄산주 나왔다

'크렁크바 피스타치 소다'·'크렁크바 캔디밤' 출시

"어서와, 크렁크가 만든 술은 처음이지?"

국내대표 연예기획사인 YG 대표 캐릭터 '크렁크'가 28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술을 선보였다. 지난 2013년 YG소속 가수 이하이의 'It's Over' 뮤직비디오를 통해 처음 소개된 크렁크는 국내를 넘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캐릭터다.

국내의 폭 넓은 팬을 보유한 크렁크는 이날 보해양조와 손잡고 '크렁크바 피스타치 소다'와 '크렁크바 캔디밤' 등 탄산주 두 종류를 출시했다. 크렁크바는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탄산주로 캔 타입이며, 용량은 355ml, 알코올 도수는 3도다.

피스타치 소다는 피스타치오 아몬드 아이스크림에서 느낄 수 있는 고소함과 밀키함을, 캔디밤은 아이스샷처럼 상쾌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아이 캔트 베어'(I can't bear)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던 크렁크는 이번에 보해양조와 협업으로 활동 분야를 한층 더 넓히게 됐다.

YG와 보해가 협업해서 만든 '크렁크바 피스타치 소다'와 '크렁크바 캔디밤'

은 전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삼거리푸줏간, 3birds 등 YG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도 만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전부터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7월 중 초도 물량 1만개가 수출될 예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에서도 판매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크렁크바 출시를 기념 SNS응원단을 모집한다. 크렁크바를 SNS에 홍보해준 응원단 모집은 7월 9일까지 보해양조 홈페이지(www.bohae.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발되면 크렁크바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